

## 대장암을 예방합시다(4)

### 대장암의 가장 좋은 치료법은 수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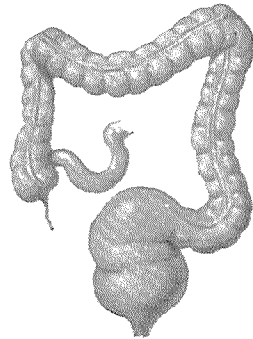
조기암의 경우 수술의 95% 이상은 완치가 된다. 수술도 간단하다.

작은 폴립암은 내시경으로 보면서 개복해서 폴립의 뿌리부분에 강선(剛線)으로 된 올가미를 걸고 전기를 통하게 해서 대위 잘라낸다.

이미 약간 진행된 조기암은 수술을 해도 장을 부분적으로 잘라내야 한다.(부분절제) 그래서 직장암에서는 인공항문을 만들어 치료하기도 한다.

직장암은 조기 발견·치료해도 완전히 치료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인공항문이라고 하는 부자연스럽게 생각되는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암이 커지게 되면, 림프절까지 퍼지기 때문에(전이), 수술을 해도 완치율은 6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 (참고) 인공항문

진행암이 항문 주위에 있을 때에는 암이 퍼져있는 항문을 포함해서 주위를 크게 절제해 낸다. 이때 대장의 절제 부위(끝부분)를 복부에 연결해서 여기서부터 변을 밖으로 내보낸다. 이것을 인공항문이라고 한다.

옛날에는 직장암 수술을 할 때는 인공항문을 만드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지금은 10년 전에 비해 반수 이하로 감소되어 항문을 남겨서 “항문 괄약근 온존수술(肛門括約筋溫存手術)이 많이 시행되고 있다. 항문을

잘라내지 않으면 암을 제거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부득이 인공항문을 만든다.

한편 인공항문은 괄약근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이 나올 것을 걱정해서 사회 복귀에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매일 아침, 매일 밤 1회씩 직접 관장을 해서 장의 내용물을 세척해 내고 종이를 이용해 처리하고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인공항문에 이용되는 장비도 많이 발달되어 있고, 탈취제도 나와 있어서 사회복귀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㉔